

12-21-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이사야 9:1-6  
말씀제목: 큰 빛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위한  
큰 빛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그들의  
메시야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이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정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왕국이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앞으로 그 왕국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한 처녀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태 속에 잉태되시고 그 안에서 9 개월  
동안 양육받으시고 갖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마리아의 젖을 먹고 기저귀를 차시고  
자라나셨으니 그야말로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상담자이셨습니다.  
상담자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상담자도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는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진정한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심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딤전 3:16)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쟁에 논쟁을  
거듭한다해도 이 위대한 신비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하나님이라 믿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또 한가지 신비로운 사실은 예수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요 10:27-30)

그분은 화평의 통치자라 불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사 9:7)

예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 길의 스불룬 땅과 납탈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연합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 육천 년 동안 세상에 평화를 이룬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엔은 아젠다 2030 을 선언하고 2030 년까지 뉴월드오더를 reset 하여 온 세상을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속이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멸하려 할 것이지만 7년 대환란 끝에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고 평화의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잡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계 19:19-20)  
아멘! 할렐루야!